

## 27년 차 경험과 패기를 바탕으로 도약

반 건 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집위원장

### Leap on the Basis of 27 Years of Experience and Mettle

Geon Ho Bahn

Editor-in-Chief,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1990년 12월호를 창간호로 1995년까지 연 1회, 1996-2007년간 연 2회, 2008-2010년은 연 3회, 2011년 이후 연 4회 발간하여 현재까지 59회, 570여 편의 논문을 발간하였습니다. 홍강의 초대 편집위원장(1990-1994) 이후, 조수철(1995-2002), 송동호(2003-2006), 신동원(2007-2009, 2호), 이정섭(2009-2013, 3호), 조수철(2014-2015) 교수께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셨고, 많은 회원들이 위원으로 활약한 공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연구재단 등재지이며, 우리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을 2016년부터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매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연구재단 등재지의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SCI(E), SCOPUS, PubMed 등으로 연계해야 하는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영어 전용 잡지로의 전환 내지는 영어 전용 학술지 창간 등 여러 방안이 수년째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의 첫 원고는 '특집원고'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의료윤리규정: 왜 필요한가?'를 게재합니다. 홍강의 윤리포상위원회 및 학회윤리규정 준비위원회 위원장께서 위원들과 진행하신 우리 학회의 의료윤리규정 제정의 준비과정과 의의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새로 제정된 우리 학회의 '의료윤리규정'은 특집원고의 '별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지 4월호에 2014년에 개정된 해당 학회의 의료윤리규정에 대한 종설이 실렸습니다. 종설은 박소영 등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서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한 고찰'입니다. 소아정신과 영역, 특히 ADHD 관련 치

료법은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이 실제 임상과 생활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근거중심적 검토 자료가 충분치 않았는데, 종설에서는 그중 오메가-3의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저는 다섯 편을 게재합니다. 윤희준 등의 '기분 장애 소아 청소년 환자에서 자살 행동, 공격 행동과 인지기능과의 관계'는 요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아동에서의 기분 장애와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인 자살 행동과의 관련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신동원 등의 'Dysfunction of Time Percep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서는 시간 지각 기능 이상과 ADHD 증상의 관련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이숙희 등은 '부모의 성격 및 자녀의 성격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 성격과 자녀 성격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적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양영희 등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서 Osmotic-Controlled Release Oral Delivery System Methylphenidate 투여가 국소 대뇌관류에 미치는 영향'에서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하여 ADHD 아동에서 약물치료 후 미치는 변화를 연구하였습니다. 임유빈 등은 '아동청소년에서 운동의 항우울 효과와 BDNF와의 관련성에 대한 예비 연구'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우울, 불안, 공격성,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보고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로 눈을 돌려 우리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학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편집위원장들과 위원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년간 이어 온 경륜과 패기를 바탕으로 더 좋은 학회지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시오.